

朝島貝塚出土 遺物 小考

—櫛文土器를 中心으로—

林 墩

A Study on the Relics from Jo-Do Island

—Mainly on the Pit-Comb Ware (Kamm Keramik)—

by

Im Don

目 次

- | | |
|------------------------|--------------|
| I. 序 言 | 3) 第 III 類 |
| II. 朝島貝塚 發掘沿革 및 遺物蒐集經緯 | 2. 石器類 |
| III. 遺 物 | 1) 黑曜石 |
| 1. 土 器 | 2) 石 器 |
| 1) 第 I 類 | 3. 各種貝殼 및 骨類 |
| 2) 第 II 類 | IV. 結 言 |
| (ㄱ) 器 形 | 圖 版 |
| (ㄴ) 文 樣 | 參 考 文 獻 |

Abstract

So far, a trial excavation of pit-comb ware, the relics of the civilized age, from Jo-Do Island was once made by Dong-a university and its survey reports (vol. 9. 1976) by National Musium were published.

The author collected some relics which were exposed on the slope of the south-west hill while the buidlings of Korean Merchant Marine College were under construction, but found that the pit-comb wares contained no traces of stratums in which they presumably been buried.

The author has arranged those pit-com wares and photographed them to introduce as research material of the pre-historical age.

It in the author's hope that this introduction will be useful to the archaeological study of Busan area.

I. 序 言

朝島는 「冬栢島」, 혹은 「아치섬」이란 名稱으로 불리어져 왔다. 「아치섬」의 명칭은 臥轍(와치)라는 말이 변해서 「와치」→「앗치」→「아치」로 되었다고 본다.

朝島에는 倭城趾가 있다. 壬辰倭亂때의 釜山浦海戰 當時(1592年) 冬栢島 즉, 椎木島의 端城에 쫓긴 倭賊들의 旗幟를 我軍이 눌렀다고하여 그후 「臥轍」란 명칭이 생겼다고 한다. 지금 불리워지고 있는 「朝島」는 日政初期 釜山浦 釜山府로 改稱할 當時, 絶影島가 行政區域 改編으로 釜山府 沙中面으로 되고, 이에 따라 東萊郡 西面에 속하였던 朝島가 沙中面 東三洞에 편입되었기에 비로소 사용된 名稱이라고 생각된다.¹⁾

朝島는 釜山地方에 있어서 先史時代 遺蹟을 比較的 良好하게 保有하고 있는 곳이다. 또 朝島貝塚는 1969년에 存在가 確認되고, 1970年 4월에 新石器時代 文化期의 貝塚遺蹟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遺蹟을 안고 있는 釜山地方은 洛東江 下流에 位置하여 新石器時代의 韓半島에 있어서 南部地方 文化의 發祥地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釜山地方의 貝塚遺蹟은 크게 둘로 區分된다. 즉 金海式文化遺蹟에 屬하는 梁山貝塚, 金海貝塚, 등과 같은 內陸台地 또는 丘陵上의 傾斜面遺蹟과 東三洞貝塚, 多大浦貝塚등과 같은 海岸地帶와 河川, 湖畔 低地帶遺蹟으로 나뉘어진다. 新石器時代 前半期에 形成된 東三洞貝塚 및 朝島의 櫛文土器貝塚를 비롯해서 靑鶴洞貝塚, 上里貝塚, 누룩나무골貝塚, 영선동貝塚, 岩南洞貝塚, 舊平洞貝塚, 新平洞貝塚, 多大浦貝塚등은 前記한 區分의 後者遺蹟에 屬하고 金石併用期인 新石器時代 後半期에 들어와 形成된 東萊貝塚, 槐亭洞貝塚, 下端貝塚, 田浦洞貝塚, 凡田洞貝塚등은 前者에 屬한다.

朝島貝塚遺蹟은 生活條件을 달리하는 두 갈래의 사람들이 時代를 달리하여 朝島에 移住해 와서 어로, 수렵, 農耕生活을 한 흔적이 共存되어 있는 特異한 文化遺蹟이다. 朝島貝塚遺蹟中의 北側, 金海式文化期遺蹟은 韓國海洋大學 本部建物 자리와 운동장 位置에 있었고, 南側의 櫛文土器遺蹟은 同大學 航海學科 建物 앞, 西南쪽 傾斜地帶 언덕사이의 西쪽面에 位置한 곳에 있었다.

本稿에서 紹介하는 朝島貝塚 櫛文土器遺蹟은 잘 알려진 東三洞貝塚과 隣近한 곳에 있고, 그 遺蹟附近에 上里貝塚과 누룩나무골貝塚등이 있다.

이러한 貝塚遺蹟의 分布狀況은 아마도 東三洞을 中心으로한 하나의 新石器時代文化圈이 形成되어 있었을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文化圈에 屬하는 朝島貝塚 櫛文土器 遺蹟은 東亞大學校博物館調查班에 依하여 試掘되기도 하고, 國立中央博物館調查班에 依하여 發掘되어, 그후 1976년에 古蹟調查報告²⁾ 등의 報告書가 나왔으나 筆者는 韓國海洋大學 新築工事時 分散된 遺物을 蒐集整理한바 있어서 이를 紹介하고, 이에 關한 所見을 첨부함으로써 釜山地方의 先史時代에 關한 古考學研究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바이다.

II. 朝島貝塚 發掘沿革 및 遺物蒐集 經緯

1. 東亞大學校博物館調查班에 依한 試掘

1969年 遺蹟의 所在位置가 筆者에 依하여 確認되었다. 1970年 4월에 손소금씨 所有地를 中心으로 新石器時代 櫛文土器貝塚이 存在한다는 事實이 알려지자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은 이 事實을 再

1) 拙稿: 「朝島의 史的考察」(韓國 海洋大學 論文集 第11輯) 釜山, 1976. 面370

2) 國立中央博物館: 朝島貝塚 (古蹟調查報告 第九冊), 서울, 1976, 65面

確認하기 위하여 1970年 6月, 東亞大學校博物館에 그 試掘調査를 위촉한 바 있다.³⁾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三個處에 試掘坑을 넣어 試掘調査를 하였다. 當時 埠頭가 닿는 곳인 손소금씨 집 뒤 밭에 1號坑을, 南西쪽으로 約 50m 떨어진 곳에 2號坑을, 2號坑에서 約 20m 거리인 이 島末端 가까운 地點에 3號坑을 넣었다.

이로써 朝島貝塚의 대략적인 內容이 파악되었다. 3號坑에서 櫛文土器片과 黑曜石, 鯨魚骨, 2號坑에서 無文土器片과 기타 動物骨片등이 出土되었으며 1號坑에서는 新羅土器, 大形の 甕形土器 口緣部 破片과 金海土器類에 屬하는 壺形土器, 高杯破片등이 出土되었다.

이 事實이 文公部 當局에 報告되어 朝島에 先史人類가 移住한 上限年代가 新石器時代라는 것이 學界에 알려지게 되었다. (圖版3參照)

2. 國立中央博物館 調查發掘

釜山市文化財로 指定된 바 있는 朝島貝塚이 1973년에 이르러 韓國海洋大學이 朝島에 新築工事を 하게 되자 이에 支障이 있게 되었다. 이에 한국해양대학은 國立中央博物館에 發掘調査를 위촉하였는 바, 1973年 7月 6日에서 8月 11日사이에 國立中央博物館 調査班은 正式 發掘을 하였다. 그 結果가 韓國考古學年報(Ⅰ)⁴⁾에 略式으로 報告되었고, 그 후 1976年 正式으로 朝島貝塚報告書⁵⁾가 刊行되었다. (圖版4 參照)

3. 筆者에 의한 遺物 蒐集經緯

1973年, 國立中央博物館의 調查發掘以後, 韓國海洋大學의 新築工事時에 破損된 遺蹟과 遺物이 露出되었으므로 이를 蒐集하기에 이르렀다.

朝島の 北쪽에 있는 金海期遺蹟에서 大量的 遺物이 蒐集되었고 또 朝島の 南部에 屬하는 西南쪽 언덕에서도 櫛文土器遺蹟이 斷面的으로 露出되었기에 學生들을 動員하여 散在된 遺物을 蒐集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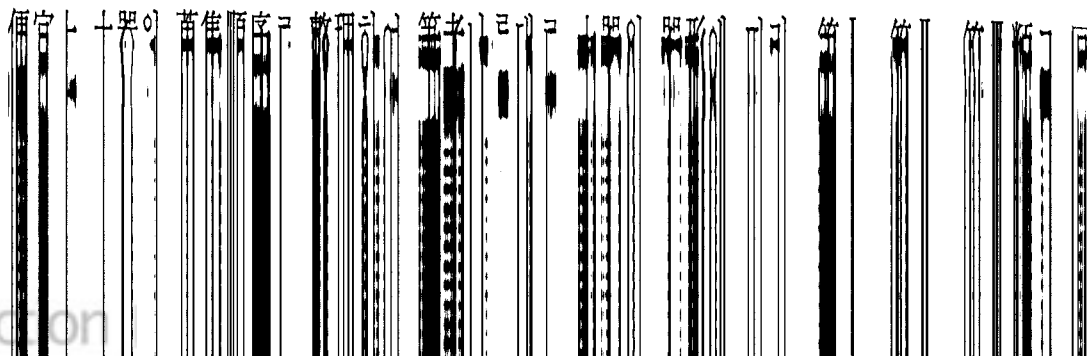
따라서 本稿에서 筆者가 紹介하려는 遺物은 西南쪽 평평한 臺地와 철거된 家屋사이, 즉 西南쪽 언덕 傾斜에 露出된 遺物이다.

그러나 層位는 그 흔적조차 全然 알 수 없다. 前述한 바도 있거니와 本稿에서 筆者는 이와같이 蒐集한 遺物을 整理하여 圖版에 依해 資料로서 紹介하는바 先史時代의 各種 學術研究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 바이다.

Ⅲ. 遺 物

1. 土 器

韓國海洋大學 新築工事中 埋築工事時 불도지에 依하여 西南쪽 언덕 傾斜 切斷面에서 櫛文土器遺蹟이 노출되어 그 遺物을 蒐集하게 되었다.



確認하기 위하여 1970年 6月, 東亞大學校博物館에 그 試掘調査를 위촉한 바 있다.³⁾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三個處에 試掘坑을 뚫어 試掘調査를 하였다. 當時 埠頭가 닿는 곳인 손소급씨 집 뒤 밭에 1號坑을, 南西쪽으로 約 50m 떨어진 곳에 2號坑을, 2號坑에서 約 20m 거리인 이 島未端 가까운 地點에 3號坑을 뚫었다.

이로써 朝島貝塚의 대략적인 內容이 파악되었다. 3號坑에서 櫛文土器片과 黑曜石, 鯨魚骨, 2號坑에서 無文土器片과 기타 動物骨片등이 出土되었으며 1號坑에서는 新羅土器, 大形の 甕形土器 口緣部 破片과 金海土器類에 屬하는 壺形土器, 高杯破片등이 出土되었다.

이 事實이 文公部 當局에 報告되어 朝島에 先史人類가 移住한 上限年代가 新石器時代라는 것이 學界에 알려지게 되었다. (圖版3參照)

2. 國立中央博物館 調査發掘

釜山市文化財로 指定된 바 있는 朝島貝塚이 1973년에 이르러 韓國海洋大學이 朝島에 新築工事を 하게되자 이에 支障이 있게되었다. 이에 한국해양대학은 國立中央博物館에 發掘調査를 위촉하였는 바, 1973年 7月 6日에서 8月 11日사이에 國立中央博物館 調査班은 正式 發掘을 하였다. 그 結果가 韓國考古學年報(I)⁴⁾에 略式으로 報告되었고, 그 후 1976年 正式으로 朝島貝塚報告書⁵⁾가 刊行되었다. (圖版4 參照)

3. 筆者에 의한 遺物 蒐集經緯

1973年, 國立中央博物館의 調査發掘以後, 韓國海洋大學의 新築工事時에 破損된 遺蹟과 遺物이 露出되었으므로 이를 蒐集하기에 이르렀다.

朝島の 北쪽에 있는 金海期遺蹟에서 大量的 遺物이 蒐集되었고 또 朝島の 南部에 屬하는 西南쪽 언덕에서도 櫛文土器遺蹟이 斷面的으로 露出되었기에 學生들을 動員하여 散在된 遺物을 蒐集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本稿에서 筆者가 紹介하려는 遺物은 西南쪽 평평한 臺地와 철거된 家屋사이, 즉 西南쪽 언덕 傾斜에 露出된 遺物이다.

그러나 層位는 그 흔적조차 全然 알 수 없다. 前述한 바도 있거니와 本稿에서 筆者는 이와같이 蒐集한 遺物을 整理하여 圖版에 依해 資料로서 紹介하는바 先史時代의 各種 學術研究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 바이다.

Ⅲ. 遺 物

1. 土 器

韓國海洋大學 新築工事中 埋築工事時 불도지에 依하여 西南쪽 언덕 傾斜 切斷面에서 櫛文土器遺蹟이 노출되어 그 遺物을 蒐集하게 되었다.

便宜上 土器의 蒐集順序로 整理하여 筆者나름대로 土器의 器形에 따라 第Ⅰ, 第Ⅱ, 第Ⅲ類로 區分⁶⁾하여 보았다.

櫛文土器의 名稱에 있어서는 幾何學文土器, 有紋土器, 條線文土器, 櫛目文土器, 櫛文土器, 櫛齒文

3) 國立中央博物館: 上揭 報告, 面378

4) 韓炳三: 「釜山 朝島(아치섬) 貝塚發掘」(韓國考古學 年報 I) 서울, 1973, 20~21面

5) 國立中央博物館: 朝島貝塚(古蹟調查 報告 第九冊), 서울, 1976, 1976. 6~7面

6) 上揭報告, 65面

土器, 빗살무늬土器⁷⁾ 등 同一文化期の 同一種의 土器가 各樣各色으로 呼稱되어 왔다. 本稿에서는 편의상 名稱을 櫛文土器로 한다.

1) 第Ⅰ類

第Ⅰ類에 屬하는 土器에는 變質櫛文土器와 약간의 赤褐軟質土器등이 있다. 動物, 漁類등의 遺骨과 貝殼이 섞여 出土되었다.

釜山市 西區 岩南洞·多大洞와 金海農所里등 洛東江地方과 黑山島一帶의 西南島嶼에서와 같이 東三洞貝塚, 大黑山島貝塚등에서도 無文 또는 斜点列文을 가진 土器⁸⁾가 나타난다. 朝島에서도 土器表面을 찌르다시피 해서 꼬리를 아래로 끌게하여 刺突点列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있고(圖版5-4, 5, 6, 7, 10) 또 外反된 口緣部에 施文한 것도 있다. (圖版 5-9, 11, 12) 穿孔을 施文한 구멍文土器도 보이며(도판 5-3), 点을 끌어 押捺한 線을 넓게 배열한 것도 있다. (도판 5-8.12)

魚骨文은 器腹部의 代表的인 文樣이다. 그 文樣은 平行斜線을 橫行으로 屈折시킨 것과 斜線의 間隔이 크르지 않은 것이 많다. (도판 5-14, 15) 이러한 文樣은 東三洞貝塚과 西生新岩里貝塚⁹⁾에서 出土된 土器에서도 볼 수 있다.

隆起文은 三角文을 연속으로 數列 斜行한 隆起線을 서로 교차시켜 만들었으니 이는 東三洞貝塚에서 出土된 土器文樣과도 비슷한 것으로 南海岸土器文樣의 한 특징으로 보아진다. (도판 5-16)

또 赤褐軟質土器도 三片程度 아주 小量이 발견된다. 그 手法은 一般的으로 金海期遺蹟¹⁰⁾에서 出土되는 것과 同一한 것이고, 器形도 平底이고 口緣部도 多小 外反된 것이 보이며 表面의 文樣은 대부분 打捺文이다. 特히 一片의 土器表面에 細土紐을 貼付한 것과 같은 施文을 한 隆起의 文樣은 그 性格은 알 수 없으나 三線을 並行시킨 것으로 보아 異土의 土器를 聯想하게 하고 있다. (도판 5-17)

2) 第Ⅱ類

東三洞貝塚¹¹⁾과 같은 遺物이 貝殼과 혼합되어 多量으로 出土되었다. 그 種類는 多樣하고 그외에 黑曜石, 骨角器, 鯨骨, 若干의 石器類등도 함께 出土되었다. 一般的으로 櫛文土器는 砂質土 乃至 粘質土를 胎土로하여 만들어진 것이 大部分이다. 粘質土와 굵은 石粒을 혼합하여 만든 土器와 粘質土와 細砂粒을 혼합하여 만든 土器의 二種類가 있는데 朝島遺蹟에서 出土된 土器는 대부분 後者に 屬한 것이었다. 出土된 土器의 文樣¹²⁾도 그 종류가 多量多樣하므로 이를 細分하여 簡略하게 記述코자 한다.

7) 金元龍: 韓國考古學 概說, 서울, 1973. 57面

金東鎬: 「釜山地方의 貝塚」(古文化 4輯), 서울, 1966. 27~33面

金龍基: 農所里 貝塚의 發掘調査報, (古文化 4輯), 서울, 1966. 17~26面

金元龍, 任孝宰: 南海 島嶼考古學, 서울대학 東亞文化研究所, 서울, 1968. 33~36面

8) 上揭書, 71面

9) 釜山大學博物館: 多大浦 貝塚 및 城山 貝塚 發掘調査報告書, 부산, 1971. 127面

國立中央博物館: 上揭 報告, 40~43面

金元龍: 上揭書, 73~74面

10) 金元龍: 上揭書, 73面

11) 金東鎬: 「韓國櫛目文土器의 研究」, 부산, 1968. 3面

有光教一: 朝鮮 櫛目文土器의 研究, 東京, 1962. 도판참조.

12) 有光教一: 上揭書, 14面

여기에서 文樣을 分類하여 中部地方의 岩寺洞 遺蹟을 標準으로 하여 「口緣部分의 文樣에 短線列文, 点線列文, 爪形文, 列点文, 斜格子文, 鋸齒文, 波狀文, 麥繫文, 重爪文」등 으로 區分하고 「胴體部分의 文樣에 綾衫文, 縱列綾衫文, 組帶文 등 13種 以上」으로 分類하고 다시 土器를 거꾸로 놓고 施文한 것과 바로 세워놓고 施文하여 생긴 差異까지를 나누어 자세하게 分類하였다.

(一) 器 形

櫛文土器의 器形은 尖底形과 圓底形이 大部分이고 약간의 平底形도 있다.

여기에서 尖底形의 土器라 함은 口緣部가 直立되고 길죽하게 오무라져서 그 器形이 평이 비슷한 三角錐形의 土器를 말하며(도판 5—4), 또 圓底形도 口緣部가 直立되어 底部가 圓形으로 둥근 사발형 土器를 말한다. (도판 8—1.2.3)

朝島에서 出土된 土器中에는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도록 底部壁이 蟄居되어 있는 모양을 가진 平底形의 것이 있는데 이는 朝島出土 櫛文土器에서만 볼 수 있는 特異한 形態라 하겠다.

(二) 文 樣

櫛文土器의 文樣의 要素는 線과 点인데, 이 線과 点은 三角形, 交叉, 並行, 曲行등의 圖案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를 基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分類해 보았다.

(A) 幾何學線文

幾何學線文이란 三角形에 흡사한 文樣을 말하는 것이다.

鳥居龍藏博士는 櫛文土器를 幾何學文의 原始的 文樣을 가진 土器라고 했고 最近에 金廷鶴博士는 이를 幾何學文土器라 하였는데 이는 櫛文土器 基本文樣의 要素에 依한 것이라고 본다. 金東鎬教授는 各 地方의 櫛文土器 文樣을 分類¹³⁾함에 있어서 「西部地方이나 中部地方에서는 角度를 좁히고 細線으로 施文한 例도 있고 南部地方에서는 넓은 角度에 깊은 太線으로 되어 있으며 東北地方에서는 깊숙하고 넓은 角度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地方的으로 가지고 있는 特色이며 幾何學의 本來의 文樣要素는 同一하게 差없이 內包하고 있다.」라 하고 있으며, 또한 「点文을 押捺한다든지 영선동貝塚 出土와 같이 土細文을 貼付한것 중에도 幾何學文의 要素가 있는 것이 었다」¹⁴⁾고 하였다.

朝島貝塚에서 出土되는 幾何學線文土器는 南部地方에서 出土되는 土器와 같은 넓은 角度의 太線文을 지니고 있으나 東三洞貝塚에서 出土되는 土器와 더불어 더욱 넓은 角度와 더욱 굵은 太線文의 文樣을 가진것이 特有하다고 하겠다.¹⁵⁾ (도판 6—1.2.3)

朝島貝塚 出土의 土器中에는 西部地方이나 中部地方에서 出土된 櫛文土器와 같이 幾何學線文의 文樣이 좁은 角度와 細線으로 施文된 것도 있었다.¹⁶⁾ (도판 6—4.5.6.7)

朝島貝塚 出土의 土器에 施文된 文樣은 線이 交叉되어 三角形을 이루고 있어 소위 幾何學文 或은 W字形 鋸齒文이라고 하는 것들이다. (도판 6—12.13.14.15.16.23)

(B) 短斜線文

短線을 平行으로 줄지어 押捺한 文樣을 말한다.

斜線을 圓形土器의 右上에서 左下의 方向으로 施文한 樣式이다.

短斜線文帶는 同方向 혹은 反對方向으로 施文된 短斜線群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短斜線群들 間に 一定한 間격을 둔것¹⁷⁾도 있고(도판 6—9,10) 短斜線이 연결 施文되어 短斜線文帶를 이루고 있는 것도 있다. (도판 6—11)

(C) 点列文

点列文은 点으로 구성된 文樣을 말한다. 이에는 亂刺式과 秩序있게 施文한 波狀式¹⁸⁾이 있고 (도

13) 金東鎬：上掲書，15面

14) 金廷鶴編：韓國의 考古學，河出書房，東京，1972. 50面

15) 橫山將三郎：釜山府 絶影島 東三洞 貝塚 報告. (中央學 雜誌 第5卷 4號)，東京，1933.

16) 金廷鶴：韓國의 考古學，河出書房，東京，1972. 35面

(圖版 11. 漢沙里 遺蹟出土의 土器, 文樣 參照)

17) 釜山大學博物館：上掲報告，124面

18) 有光教一：上掲書，(圖版 15. 17) 參照

관 6-18), 그 외에 相輸으로 交叉한 曲列 短線文, 비스듬하게 二重으로 施文한 것과 口緣部에 突起式으로 施文한 角狀式 등의 文樣이 있다. (도판 6-8, 9, 11)

短斜線文이 器腹文으로 施文되어 있는 예를 「第Ⅰ類」에서 前述한 바 있거니와 朝島에서 出土된 土器의 이 点列文도 역시 器腹文으로 施文되어 있다.¹⁹⁾

口緣部上部에 突起式으로 刺線文을 施文하여 그 밑 口緣部에 X形의 亂刺文帶를 並行하고 X形의 文樣을 間격이 넓은 形態는 朝島貝塚 出土의 土器文樣의 特異한 것으로 생각된다. (도판 6-19)

(D) 魚骨文

이 魚骨文은 주로 器腹部에 많이 보이는 文樣이나 口緣部에도 볼 수 있다.²⁰⁾ 이는 平行斜線을 橫으로 屈折시킨 것인데 線이 굵고 平行線이 고르지 않은 것도 있다. 朝島出土의 土器에서만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特異한 魚骨文 文樣도 있다. 즉 굵은 平行線이 고르지 않은 木枝모양으로 施文되어 있고 그 위에 点列이 施文되어 있는바, 이것은 마치 木枝위에 芽(싹트는 모양)이 붙은 모양과 같다 (도판 6-20, 21, 22)

(E) 隆起文

隆起文은 土器의 口緣部나 器腹部에 裝飾된 文樣으로 數列의 直線隆起文으로 된 것 (도판 6-27) 과 隆起文을 서로 교차시켜 格子文²¹⁾ 으로 만든 것이 있으며 (도판 6-23) 영선동貝塚²²⁾에서 出土된 土器의 文樣과 같이 土紐를 貼付 시킨 數列直線隆起文은 東三洞貝塚에서 出土된 土器에서도 볼 수 있었다. (도판 6-25, 26)

3) 第Ⅲ類

이 土器는 그 性格을 알 수 없으나 筆者 나름대로 생각할 때 先無文土器 或은 先櫛文土器인 東三洞 貝塚(I)과 닮은 것 같다. 그 表面에 진흙을 칠한 것처럼 보이는 破片이 出土되었는데 그 破片은 口緣部를 지니고 있는바, 이것으로 봐 器腹이 둥근 半卵形圓底土器의 破片이 아닌가 생각된다, (도판 9-1)

이와 비슷한 先櫛文土器인 半卵形圓底土器가 咸北 雄基郡 屈浦里貝塚, 咸北 三峰, 平北의 滿浦 및 釜山의 東三洞貝塚 最下層(東三洞貝塚(I))에서도 出土된 바 있다.²³⁾ 그리고 爪形文土器도 함께 出土되었는데, 이 土器는 것은 胎土의 表面을 손가락 끝으로 눌러서 만든 것이라 하겠다. (도판 9-2)

2. 石 器 類

1) 黑曜石

黑曜石으로 만든 細石器의 石鋸, 石刃 등이 出土되었다. ((도판 10)

이들은 東三洞貝塚, 누룩나무골貝塚, 多大浦貝塚²⁴⁾ 등에서 出土되는 것과 같다

19) 釜山大學博物館: 上揭報告, 125面

20) 金元龍: 上揭書, 63~64面

魚骨文 土器는 「施文에 있어서는 口緣部에서 肩部에 걸쳐 밀접한 押捺斜短線文을 數列 돌리고 그 아래 器腹部에는 押捺, 陰刻, 擦過 등으로 길쭉한 平行斜線列을 橫走…… 一見 魚骨文 같은 印象을 주는 것이다」

21) 任孝宰: 「慶南 東萊郡 西生面 出土 隆起文 土器」(考古學 第一輯) 서울, 1973.

22) 有光教一: 「朝鮮釜山府瀛仙洞의 貝塚」(人類學 雜誌 51-2), 東京, 1936

23) 金元龍: 上揭書, 57~58面

「最下層인 東三洞(I)에서는 前記 無文土器外에 隆起文土器, 押捺文土器 등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總體的으로 東三洞(I)은 典型的인 櫛文土器보다 앞서는 層이며 北韓에서의 경우를 위시해서 우리 나라에 局地的이나마 櫛文土器期에 앞서는 先櫛文期가 있었다고 믿어지고 따라서 이 時期를 일단 先櫛文期. 그 단계를 新石器時代 前期라고 設定하는 것이다.」

24) 釜山大博物館: 上揭 報告, 127面

黑曜石으로서 만들어진 石器는 咸北鏡城郡 農浦洞의 油坂貝塚, 雄基貝塚, 茂山貝塚, 沿海州 地方의 貝塚 등에서 發見되었다. 또 慶北 迎日郡 長鬚부근에서도 黑曜石器가 出土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그것은 東三洞文化圈으로 부터 流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아직은 不明하다.²⁵⁾ 東三洞遺蹟과 黑曜石器文化와의 關係를 그 流入經路로써 考察하건데 東海岸의 海路를 따라 黑曜石文化가 東三洞文化圈에 傳播되었을 것이라는 說도 있다.²⁶⁾ 또 日人學者들²⁷⁾은 東三洞貝塚과 朝島貝塚에서 出土된 黑曜石製의 細石器는 日本 九州地方의 鹿兒島, 佐賀, 長崎 등의 黑曜石 原石産地로부터 流入된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²⁸⁾

2) 石 器

○ 打製石斧

粗略한 板岩으로 만들어진 扁平三角形의 打製石器²⁹⁾인바, 그 單刃部分이 落失되어 原形態를 復元하기 어려운 狀態이다. (도판 11-1)

○ 打製石斧

斑岩製石器이며 粗略한 打碎器로서 손잡았던 痕跡이 있다. (도판 11-2)

○ 石斧形器

平片石製의 打碎器(도판 11-3)

○ 打割된 礫石

硬質礫石으로 만든 粗略한 未完成品³⁰⁾ (도판 11-4)

○ 自然礫石(도판 11.5.6)

3. 各種 貝殼 및 骨類

魚類, 海棲 哺乳類, 陸棲 哺乳類 및 鳥類³¹⁾의 骨類와 貝殼類(도판 12-1.2) 등이 出土되었다.

IV. 所 見

筆者가 直接 蒐集한 朝島貝塚 遺物에 관한 筆者나름대로의 所見을 피력하면 다음과 같다.

土器는 그 形態에 따라 圓底形土器와 平底形土器 및 尖底形土器로 分類하고, 圓底形土器와 平底形土器를 簡文土器 第Ⅰ類로, 尖底形土器와 圓底形土器를 簡文土器 第Ⅱ類로, 그리고 圓底形土器를 簡文土器 第Ⅲ類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叙上의 글도 이 分類法에 依하였다.

25) 金廷鶴: 上揭書, 49面

26) 金廷鶴: 「韓國 幾何文 土器文化의 研究」(韓國史編 論文選集<先史篇> 「歷史學會篇」) 서울, 1976. 57~58面

27) 江坂輝彌: 「黑曜石」(新版 考古學 講座 第9卷) 雄山閣, 東京, 1971. 276面

28) 日人學者들이 主張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東三洞 貝塚을 비롯하여 釜山附近의 海岸地帶에서만 出土되는 隆起施文土器는 日本의 曾畑土器, 轟式土器와 類似하다. 또 東三洞을 中心으로 한 遺蹟에서 出土된 黑曜石製 石器의 石質이 日本 佐賀縣 西有町 腰岳産의 黑曜石과 同系의 것이다 하여 東三洞-日本을 黑曜石의 交易圈에 屬하고 있었다는 것.

中山平次郎: 「肥後國 宇土郡 花園村 岩古層 宇曾畑 貝塚의 土器」 考古學雜誌 8卷, 東京. 1918.

• 曾畑土器: 日本九州 熊本縣 宇土市 岩古層 宇曾畑의 繩文遺蹟 出土의 押形文土器를 曾畑式土器라 하고 1923年 清野謙次가 發表하였다.

濱田耕作: 榊原正職, 清野謙次

「肥後國 宇土郡 轟村官莊 貝塚 發掘報告」 京大考報 5卷, 京都, 1920.

• 轟式土器: 日本九州 熊本縣 宇土市(舊轟村) 官莊, 1919. 濱田耕作의 發掘, 土器는 條痕文의 特色인 土器

29) 江坂輝彌: 「熊本縣 轟貝塚 出土의 打製靴型 石器にていて」 日本民族と南方文化, 平凡社, 東京, 43面.

30) 金元龍: 「南海島嶼考古學」, 서울 大學 東亞 文化研究所, 서울, 1968. 41面. (圖版20參照)

31) 國立 中央博物館: 上揭 報告 55~60面

文樣에 關한 筆者의 所見으로서는, 보편적으로 分布되어 있는 有紋土器에 施文된 共通的인 原始的 幾何學文樣이 第Ⅱ類에서 第Ⅰ類에 걸쳐 變遷하여 그 器形에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본다.

櫛文土器는 그 基本的特色인 尖底 및 圓底形態를 가지고 있으나, 第Ⅰ類에는 斜點列을 돌린 口緣部文樣도 있고 器腹部에 施文되어 있는 線文도 약간 남아있는 例가 있다.

朝島貝塚에서 發見된 土器는 그 形態와 文樣에 特異한 點이 있다고 하겠다.

즉, 土器의 平底部에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도록 底部壁이 蟻居된 罅의 것도 있고(도판 8—5. A), 또 太線의 넓은 角度와 깊은 線(도판 6—2. B)으로 口緣上部에 刺線文을 그리고 그 밑에 X形의 亂刺文帶를 並行시킨 것(도판 6—19. 20. 21. 22 C)과 圖版 6—23에서 揭示되어 있는바와 같이 交叉된 格子文(D)의 隆起文의 文樣을 가진 土器가 있는데 이는 地方의 어느 遺蹟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思料된다.

叙上 같은 特異한 文樣도 있으나 大部分의 文樣은 東三洞貝塚이나 영선동貝塚 등의 南部地方의 遺蹟에서 發見된 土器의 文樣과 共通的 類似點을 지니고 있는 것을 엿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朝島附近 遺蹟이나 西南海岸地方의 遺蹟에서 發見된 土器의 文樣이 粗雜하고 疎略化되어 있는데 反하여 朝島櫛文土器의 施文方法이 매우 優雅하고 세련되어 있는 點이 特異하다 하겠고, 朝島貝塚의 遺物에서는 그 例를 볼 수 있다.

礫石器는 그 器形에서 미루어 매우 退化墮落된 것이라 하겠고 그 刃部도 消耗되어 있다. 打製石斧는 그 握(손잡았던)痕跡이 남아있어 握斧와 같은 印象을 주고 있다. (도판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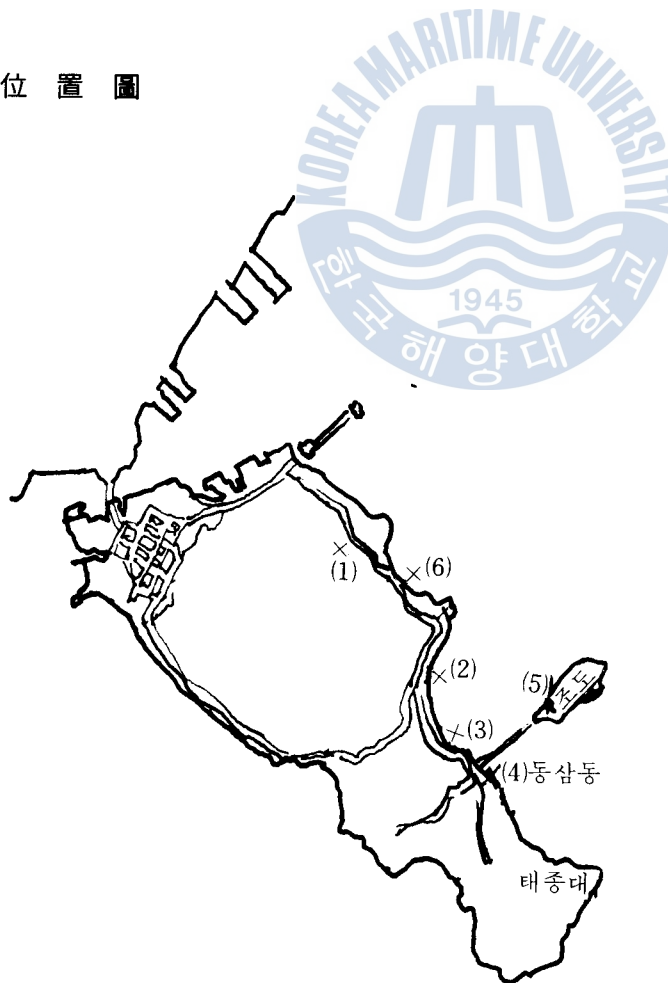
參 考 文 獻

1. 國立博物館, 朝島貝塚(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第九冊) 서울, 1976.
2. 金東鎬, 「韓國櫛目文土器의 研究」 釜山 1968.
3. 金元龍, 韓國考古學年報 I, 서울大學, 서울, 1973.
4. 金元龍, 韓國考古學, 概說 一志社, 서울, 1973.
5. 金廷鶴, 韓國의 考古學, 河出書房. 東京, 1972.
6. 江坂輝彌, 新版考古學講座 第9卷, 雄山閣, 東京, 1971.
7. 古賀秀男, 白蛇山岩陰遺蹟, (佐賀縣博物館調查研究書 第1集), 佐賀, 1969.
8. 佐賀縣教育委員會, 西有田町 繩文遺蹟, 佐賀, 1966.
9. 高大民族文化研究所編, 韓國文化史大系 I, II, III, 서울, 1971.
10. 烏居龍藏, 大正五年度 古蹟調查報告書, 서울, 1916.
11. 橫山將三郎, 東三洞貝塚調查報告書, 史前學雜誌 5—4, 서울, 1933.
12. 金廷鶴, 韓國幾何學文 土器의 研究 白山學報 4, 서울, 1968.
13. 小林行雄, 日本考古學 概說, 東京, 1966.
14. 金元龍, 韓國史前遺蹟遺物地 名表. 서울, 1965.
15. 日本考古學辭典, 東京, 1962.
16. 圖解 考古學辭典, 東京, 1959.
17. 釜山大博物館, 多大浦貝塚 및 城山貝塚發掘調查報告書, 釜山, 1971.
18. 千寬宇編, 韓國史大系, 三珍社, 서울, 1972.
19. 釜山市, 釜山略史, 釜山, 1968.
20. 釜山府, 釜山府史原稿, 釜山, 1930.
21. 慶尚南道, 慶南의 城址, 釜山上田印刷所, 釜山, 1934.
22. 韓炳三, 「釜山朝島(아치섬) 貝塚 發掘」(韓國考古學年報 I), 서울, 1973.
23. 有光教一, 朝鮮櫛目文土器의 研究, 東京, 1968.
24. 金廷鶴, 韓國의 考古學, 東京, 1972.
25. 任孝宰, 「慶南東萊郡 西生面出土 隆起文 土器」(考古學 第一輯), 서울, 1973.
26. 金元龍. 南海島嶼考古學, 서울 大學, 서울, 1968.
任孝宰.
27. 竹山尚賢, 「九州北西部に 原人文化, 石器の周り土を熱分析すれば」, 科學朝日, 東京, 1974.
28. 拙稿, 「釜山先史期土器片에 對한 熱分析法의 適用」韓國海洋大學 論文集, 第九輯, 釜山, 1974.
29. 拙稿, 「朝島の 史的考察」, 韓國海洋大學論文集, 第11輯, 釜山, 1976.

1. 遠 景



2. 位 置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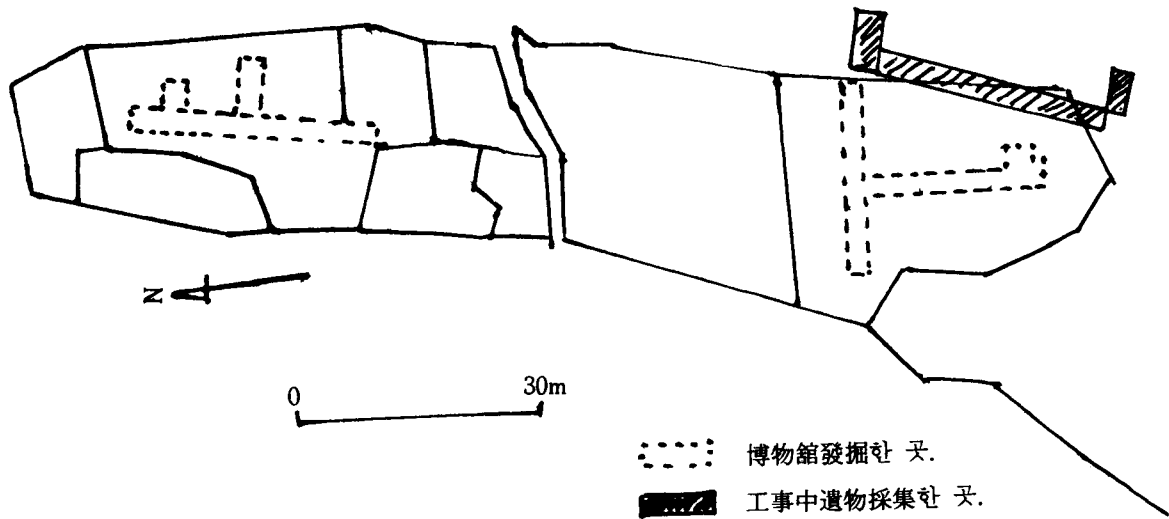


- (1) 溫仙洞貝塚
- (2) 누룩나무골貝塚
- (3) 上里貝塚
- (4) 東三洞貝塚
- (5) 朝島貝塚
- (6) 青鶴洞貝塚

3. 近 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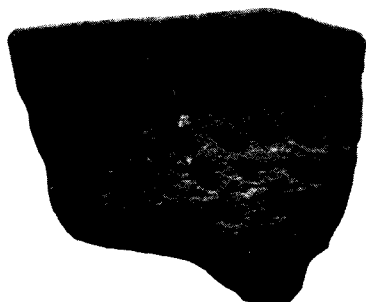


4. 地形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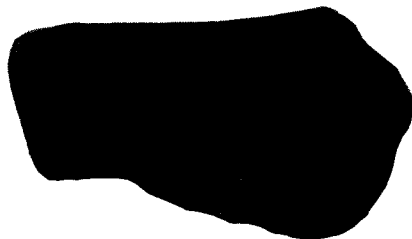


5. 籐文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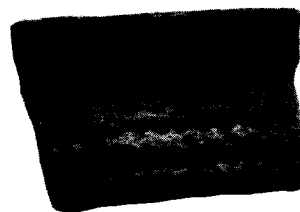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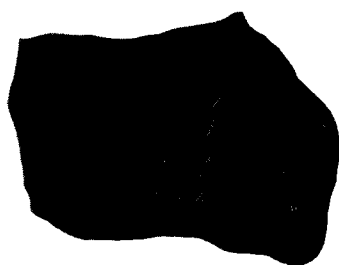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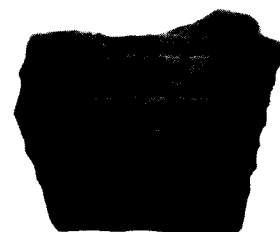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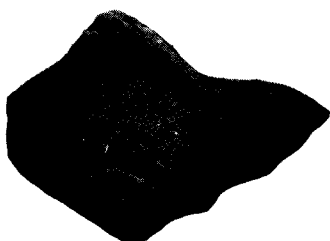
12



13



14



1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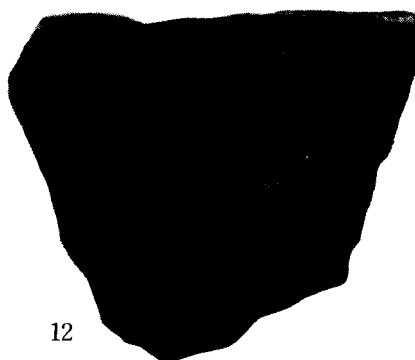
17

6. 籐文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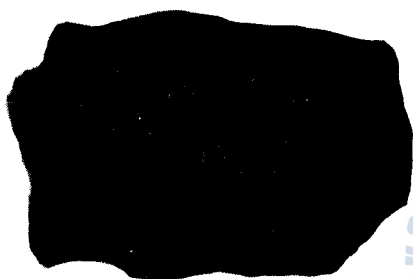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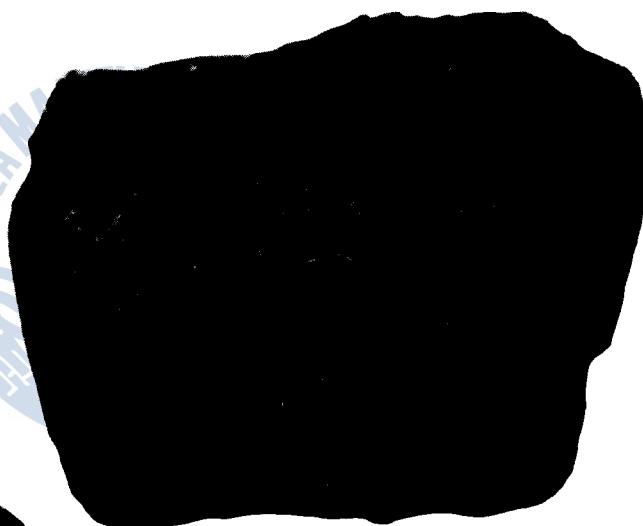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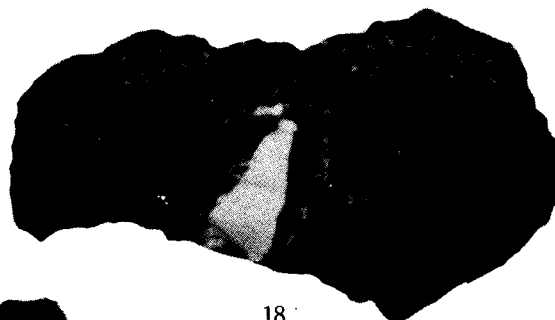
14



13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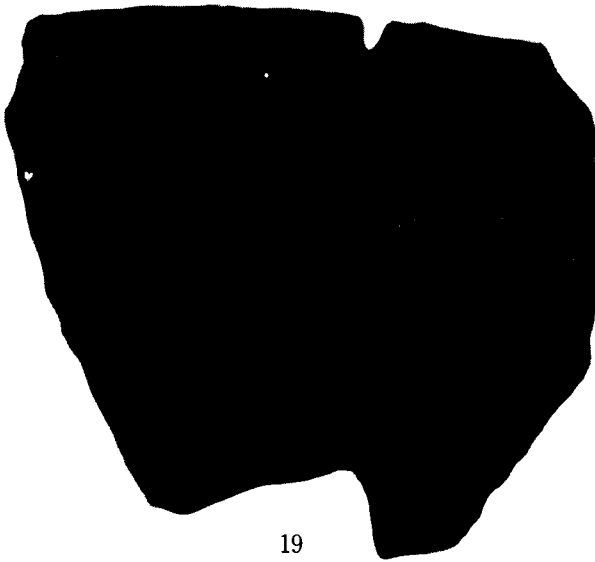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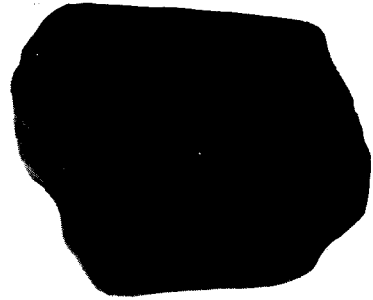
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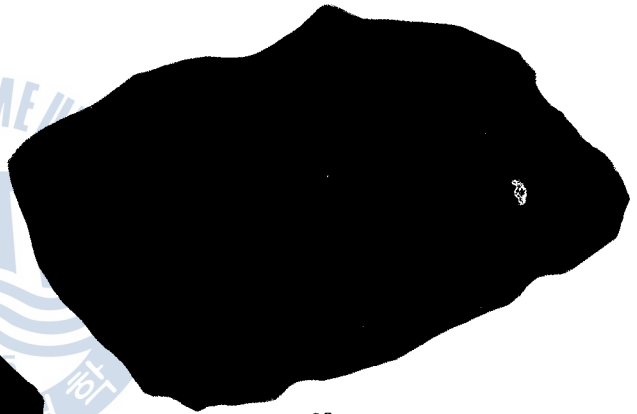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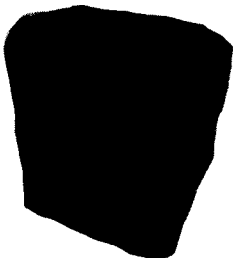
20



2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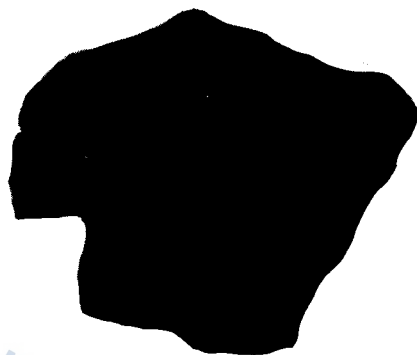
24



23



25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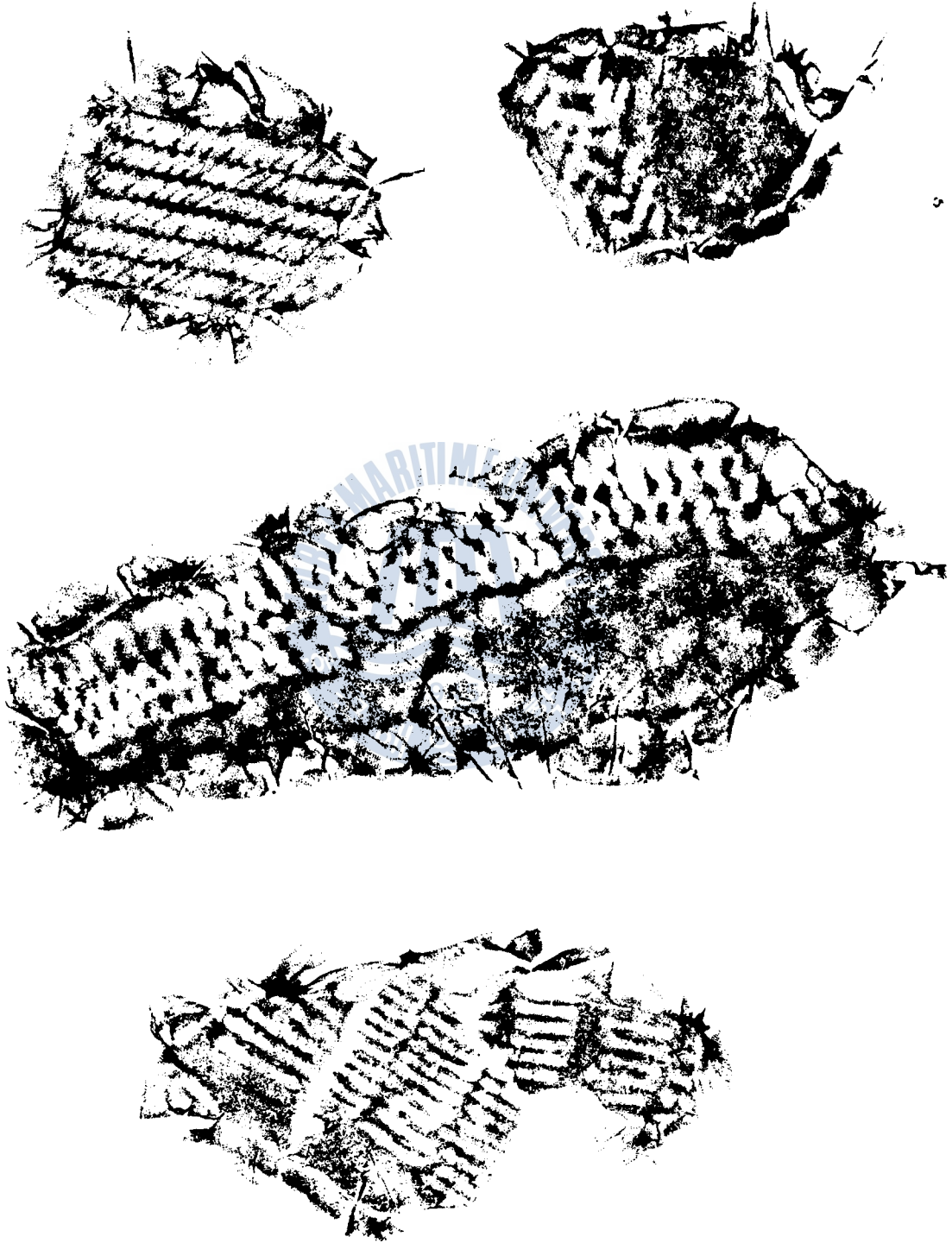


27



7. 拓 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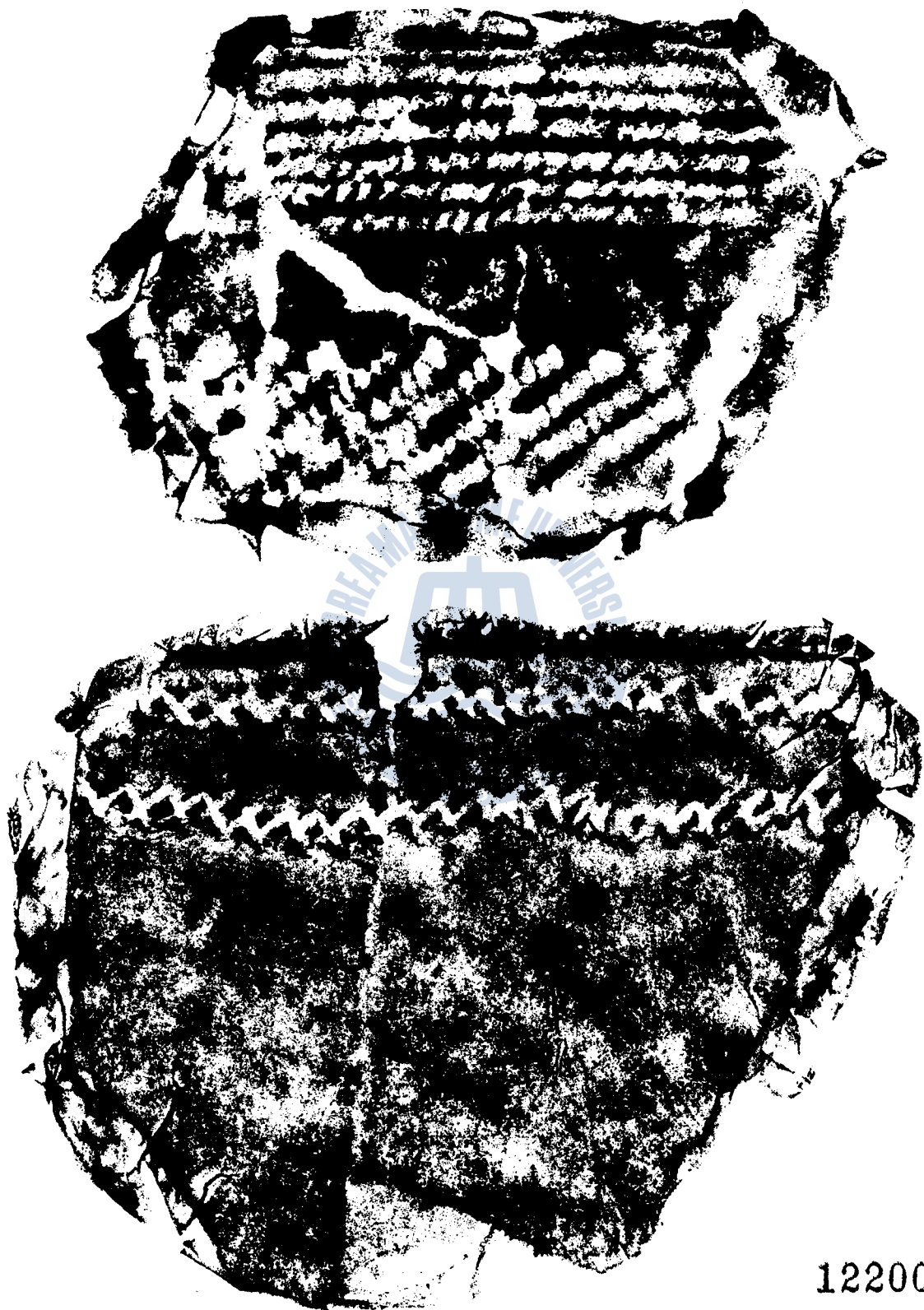
9-1 籐文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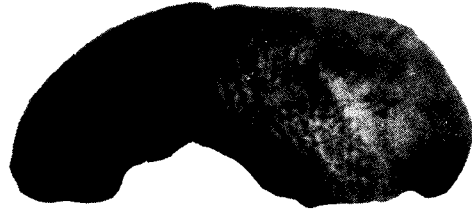


12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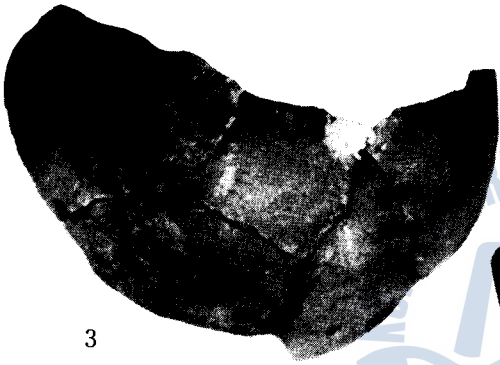
8. 土器底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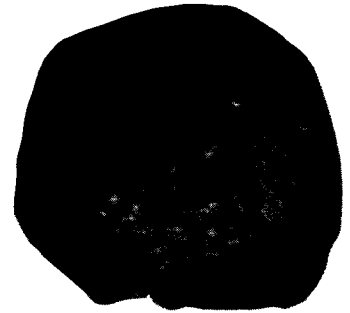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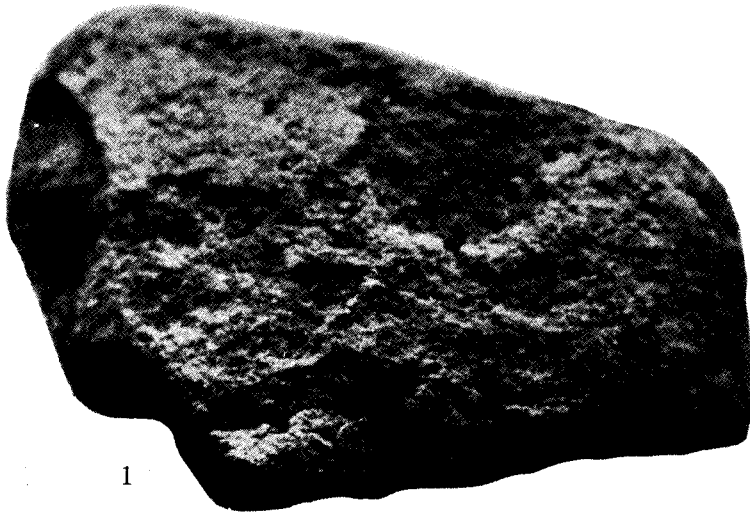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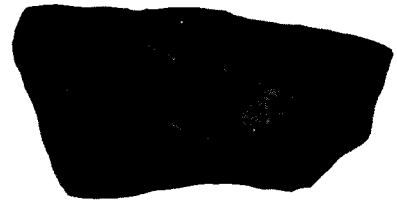


4

9. 縹文土器



1



2

13. 骨 格 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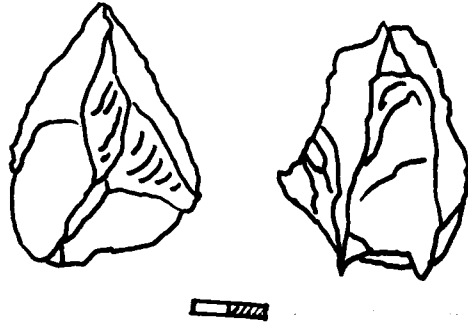
鯨魚骨

炭화된 鯨魚骨

魚骨製品

各種動物骨格

10. 黑曜石



11. 石器類



12. 貝 殼 類

